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의 AIDS에 대한 지식, 태도에 관한 연구

이미라

주성대학 치위생과

A study on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AIDS in undergraduates for the health-related department and the health-unrelated department

Mi-Ra Lee

Dept. of Dental Hygiene, Juseong College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range basic data necessary for education of AIDS and to prevent AIDS on undergraduates' knowledge or attitude toward AIDS.

Methods :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used among 350 undergraduates in some of Jeonbuk and Gyeongnam area from September 9, 2009 to December 10, 2009 and then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Results : 1. Information route on AIDS was indicated to be higher in order of school education with 37.1% and TV & newspaper with 31.5% as for the health-related department. The health-unrelated department was indicated to be the highest in TV & newspaper with 67 people(43.8%), and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 < 0.01$). 2. The whole knowledge score on AIDS was indicated to be 12.72 ± 2.67 for the health-related department, resulting having been higher than the health-unrelated department with 11.84 ± 3.30 .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p < 0.01$). The attitude score on AIDS was indicated to be 4.85 ± 1.67 for the health-related department, resulting having been higher than the health-unrelated department with 4.38 ± 1.58 .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p < 0.01$). 3.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general AIDS stood at $r = .112$ ($p < 0.05$), thereby having had positive correlation.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AIDS infection stood at $r = -.220$ ($p < 0.01$), thereby having had negative correl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whole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AIDS stood at $r = -.105$ ($p < 0.05$), thereby having had negative correlation.

Conclusions : AIDS is exponentially increasing in the whole world and is getting more serious. Even in our country, it is the tendency that the infected are gradually increasing. Health care of AIDS, which is impossible to be fully recovered and has no vaccine, is preferential to prevent infection. A continuous and efficient preventive education program is thought to be necessary for straightening wrong knowledge and prejudice on this by grasping right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AIDS.

Keywords : AIDS, attitude, knowledge

색인 : AIDS, 지식, 태도

1. 서론

AIDS(Acquired Immuno Deficiency Syndrome : 후천성면역결핍증)는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감염에 의해 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가공할 만한 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¹⁾.

AIDS 바이러스는 혈액이나 정액 등을 통하여 인체에 침입하여 감염되고 잠복기가 길고 매우 다양한 신체 증상을 나타내면서 진행되는 것이 특징으로 AIDS증후군은 감염된 후 3~6주 후부터 가볍게 고열, 오한, 전신근육통, 관절통, 두통, 설사 같은 증상이 독감처럼 1~2주 계속되다가 저절로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증상은 전체 감염자의 30~40%에서 발현하는 급성 증상으로 이 시기가 지나면 별다른 증상 없이 잠복기가 계속된다. 잠복기간은 성인의 경우 8~10년으로 평균 9.8년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기간 중 과로, 체중 감소, 발열, 아구창, 구강 백반, 림프절 비대 등의 면역 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후 중증의 기회감염, Kaposi육종, 중추신경계의 원발성 임파종, 점막 피부 부위의 광범위한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 백색칸디다, 거대세포 바이러스 및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식도염, 치매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²⁾. 이와 같이 AIDS 바이러스는 뇌와 기타 기관까지의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AIDS 환자들이 운동이나 기억력, 인체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AIDS 환자들의 사망원인은 단순히 HIV에 감염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HIV가 인체에 침투하여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점차 감소시켜 어떠한 질환이 발생해도 이를 막아 낼 수 없는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다.

2010년 6월말 현재 내국인 누적감염인은 총 7,268명이며 1,292명이 사망하여 5,976명이 생존해 있고 남성이 6,661명(91.6%), 여성이 607명(8.4%)으로 성비는 11:1이고 20대 1,630명(22.4%), 30대 2,266명(31.2%), 40대 1,718명(23.6%)이며, 연도별 연령 추이는 30대 이하의 감소, 40대 이상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감염경로가 밝혀진 5,899명 중 성접촉에 의한 감염의 비율은 5,845명(99%)으로 이 중 이성간 성접촉은 3,528명(59.8%), 동성간 성접촉은 2,317명(39.3%)이며 감염경로의 추이는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2007년 이후 수직

감염으로 인한 감염사례는 없고 2006년 이후 수혈로 인한 감염사례도 없다고 보고되었다³⁾.

현재 대부분의 AIDS의 치료법들은 혈액 내의 바이러스 역가를 낮추어 면역체계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기회감염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감염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AIDS의 완치는 불가능하며 현재 AIDS의 어떤 백신도 존재하지 않는다³⁾. 그러므로 AIDS에 대한 건강관리는 감염예방이 최우선으로 AIDS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IDS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Bennett⁴⁾은 AIDS 예방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HIV발생률이 감소되고, 에이즈에 관한 적절한 지식이 부족한 집단에서 HIV발생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고, Munodawafa 등⁵⁾은 건강관리제공자들이 AIDS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두려움이 높다는 것을 보고하고 AIDS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간호에 대한 소명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식 이외의 태도와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부 전문대학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AIDS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AIDS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정립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에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북, 경남지역 일부 대학생 남녀 총 36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본 연구자가 조사자에게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한 후에 작성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2009년 9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350부의 설문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방법

연구도구는 한과 이⁶⁾의 연구와 안과 김²⁾의 연구에서

사용한 내용을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으며 자기기입식 설문법을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문항, 일반적인 AIDS 지식 4문항, AIDS 감염에 관한 지식 8문항, AIDS의 증상에 관한 지식 8문항, AIDS에 대한 태도 7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AIDS 지식은 20문항으로 각 문항별로 응답명수 및 정답률을 백분율로 표시하였고, 정답에 1점, 오답과 무응답에 0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AIDS에 대한 지식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AIDS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7문항으로 긍정적 반응 시 1점, 부정적 반응 시와 무응답에 0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AIDS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나타낸다.

2.3.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WIN Ver.1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AIDS에 대한 교육경로, AIDS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AIDS 감염에 관한 지식, AIDS의 증상에 관한 지식, AIDS에 대한 태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X^2(p)$ 를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AIDS에 대한 전체지식과 태도의 점수는 평균 차이 검증인 T-test를 실시하였고 AIDS의 지식도와 태도의 상관관계는 Spearman Correction으로 하였다.

3. 연구성적

3.1. 대상자의 전공에 따른 일반적 특성

대상자 350명 중 보건계열 대학생은 197명, 비보건계열 대학생은 153명이었다. 보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여자는 각각 72.6%, 50.3%였고, 21~24세는 각각 49.7%, 47.7%였으며 미혼은 94.9%, 75.8%로 높게 나타났다<표 1>.

3.2. 대상자의 전공에 따른 AIDS에 대한 정보경로

보건계열의 AIDS의 정보경로는 학교 교육이 37.1%, TV, 신문이 31.5%, 인터넷 17.8%, 친구친척 7.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비보건계열은 TV, 신문이 43.8%, 인터넷 27.5%, 학교 교육이 15.7%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표 2>.

3.3. 대상자의 전공에 따른 AIDS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대상자의 AIDS의 일반적인 지식 정답률은 보건계열은 70.3%로 비보건계열 66.1%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AIDS에 걸렸을 수도 있다’로 보건계열 94.9%, 비보건

표 1 .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N(%)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Health related	Health-unrelated	Total
Gender	Male	54(27.4)	76(49.7)	130(37.1)
	Female	143(72.6)	77(50.3)	220(62.9)
Age	Under 20 years old	91(46.2)	41(26.8)	132(37.7)
	21~24 years old	98(49.7)	73(47.7)	171(48.9)
	Over 24 years old	8(4.1)	39(25.5)	47(13.4)
Marital status	Married	10(5.1)	37(24.2)	47(13.4)
	Unmarried	187(94.9)	116(75.8)	303(86.6)
Religion	Roman Catholicism	13(6.6)	8(5.2)	21(6.0)
	Christianity	72(36.5)	49(32.0)	121(34.6)
	Buddhism	41(20.8)	21(13.7)	62(17.7)
	Others and non-religion	71(36.0)	75(49.0)	146(41.7)
Total		197(100)	153(100)	350(100)

표 2. Information route on AIDS

Unit: N(%)

Classification		Health-related	Health-unrelated	Total	p-value
Information route	TV, newspaper	62(31.5)	67(43.8)	129(36.9)	.000***
	Internet	35(17.8)	42(27.5)	77(22.0)	
	School education	73(37.1)	24(15.7)	97(27.7)	
	Friend, relative	15(7.6)	5(3.3)	20(5.7)	
	Doctor, hospital, medical institution	3(1.5)	2(1.3)	5(1.4)	
	Others	9(4.6)	13(8.5)	22(6.3)	
Total		197(100)	153(100)	350(100)	

***p<0.001

표 3. General knowledge on AIDS

Unit: N(%)

Item	Health-related		Health-unrelated		p-value
	True	False	True	False	
AIDS can be prevented given always using condom given the sexual relations(T).	154(78.2)	43(21.8)	115(75.2)	38(24.8)	.508
Even a person who looks healthy may get AIDS(T).	187(94.9)	10(5.1)	137(89.5)	16(10.5)	.057
Being infected with AIDS virus leads to coming to die within a few months(F).	64(32.5)	133(67.5)	44(28.8)	109(71.2)	.454
If even AIDS is cured rightly, survival is possible for a long time(T).	149(75.6)	48(24.4)	109(71.2)	44(28.8)	.354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70.3%		66.1%		

계열 89.5%였고,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몇 달 안에 죽게 된다’로 보건계열 67.5%, 비보건계열 71.2%로 나타났다<표 3>.

3.4. 대상자의 전공에 따른 AIDS 감염에 관한 지식

대상자의 AIDS 감염에 관한 지식 정답률은 보건계열은 65.3%로 비보건계열 61.9%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항 중에서 ‘에이즈는 성 접촉에 의해 전염된다’에 대해서 보건계열, 비보건계열 각각 71.1%, 88.2%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에이즈는 기침이나 재채기에 의해 전염된다’ 문항은 보건계열, 비보건계열 각각 66.0%, 68.6%으로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였다.

또한 ‘에이즈는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다(p=0.008),

‘에이즈는 침에 의해 전염된다(p=0.025), ‘에이즈는 모 유수유로 감염될 수 있다(p=.042)’의 문항은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보다 월등하게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4>.

3.5. 대상자의 전공에 따른 AIDS의 증상에 관한 지식

AIDS 증상에 관한 지식 정답률은 보건계열은 58.3%로 비보건계열 52.9%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항 중 ‘에이즈에 걸리면 체중이 감소한다’의 항목이 보건계열, 비보건계열 각각 78.7%, 64.1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고, ‘에이즈에 걸리면 치매가 생긴다’ 항목은 보건계열, 비보건계열 각각 78.7%, 77.1%로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였다.

표 4. Knowledge on AIDS infection

Unit: N(%)

Item	Health-related		Health-unrelated		p-value
	True	False	True	False	
Even a baby, who was born after being infected with AIDS, can be infected(T).	174(88.3)	23(11.7)	127(83.0)	26(17.0)	.155
Even given making school or work life with a person infected with AIDS, infection may be possible(F).	74(37.6)	123(62.4)	55(35.9)	98(64.1)	.756
AIDS is a disease caused by virus(T).	140(71.1)	57(28.9)	88(57.5)	65(42.5)	.008**
AIDS is infected by blood(T).	159(80.7)	38(19.3)	118(77.1)	35(22.9)	.413
AIDS is infected by sex(T).	181(91.9)	16(8.1)	135(88.2)	18(11.8)	.254
AIDS is infected by saliva(F).	73(37.1)	124(62.9)	75(49.0)	78(51.0)	.025*
AIDS is infected by cough or sneezing(F).	67(34.0)	130(66.0)	48(31.4)	105(68.6)	.602
AIDS may be infected by breast-feeding(T).	162(82.2)	35(17.8)	112(73.2)	41(26.8)	.042*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65.3%		61.9%		

*p<0.05, **p<0.01

표 5. Knowledge on AIDS symptom

Unit: N(%)

Item	Health-related		Health-unrelated		p-value
	True	False	True	False	
Catching AIDS leads to having fever and sweating(T).	120(60.9)	77(39.1)	94(61.4)	59(38.6)	.921
Catching AIDS leads to nausea and vomiting(T).	111(56.3)	86(43.7)	84(54.9)	69(45.1)	.787
Catching AIDS leads to headache and diarrhea(T).	109(55.3)	88(44.7)	78(51.0)	75(49.0)	.418
Catching AIDS leads to dementia(T).	42(21.3)	155(78.7)	35(22.9)	118(77.1)	.727
Catching AIDS leads to reducing weight(T).	155(78.7)	42(21.3)	98(64.1)	55(35.9)	.002**
Catching AIDS leads to leukoplakia in the tongue(T).	136(69.0)	61(31.0)	83(54.2)	70(45.8)	.005**
Catching AIDS leads to shingles(T).	132(67.0)	65(33.0)	84(54.9)	69(45.1)	.021*
Catching AIDS leads to lymphoma(T).	115(58.4)	82(41.6)	92(60.1)	61(39.9)	.740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58.3%		52.9%		

*p<0.05, **p<0.01

또한 ‘에이즈에 걸리면 체중이 감소한다(p=0.002)’, ‘에이즈에 걸리면 혀의 백반증이 생긴다(p=0.005)’, ‘에이즈에 걸리면 대상포진이 생긴다(p=0.021)’의 문항은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5>.

3.6. 대상자의 전공에 따른 AIDS에 대한 전체 지식과 태도 점수

AIDS의 일반적 지식, 감염지식, 증상지식을 포함한 전체 지식 점수는 20점 만점에 보건계열은 12.72 ± 2.71 로 비보건계열 11.84 ± 3.30 보다 다소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AIDS의 태도 점수는 7점 만점에 보건계열은 4.85 ± 1.67 로 비보건계열 4.38 ± 1.58 보다

표 6. Whole knowledge and Attitude on AIDS

Unit: Mean±Standard deviation

Classification	Health-related	Health-unrelated	p-value
Knowledge level score	12.72±2.67	11.84±3.30	0.007**
Attitude level score	4.85±1.67	4.38±1.58	0.008**

**p<0.01

다소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표 6〉.

3.7. 대상자의 전공에 따른 AIDS에 대한 태도

AIDS에 관한 태도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낸다. 문항 중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문항은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동정할 가치가 없다’로 보건계열은 9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보건계열에서는 ‘에이즈 환자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로 85.0%를 나타냈다.

또한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동정할 가치가 없다(p=0.001)’,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p=0.002)’,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격리시켜야 한다(p=0.038)’의 문항은 긍정적인 반응이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7〉.

3.8. 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

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r=.112(p<0.05)$ 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일반적인 AIDS 지식이 높을수록 AIDS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고, AIDS 감염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r=-.220(p<0.01)$ 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AIDS 감염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AIDS 전체지식과 태도와의 관계는 $r=-.105(p<0.05)$ 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AIDS에 전체지식이 높을수록 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표 8〉.

4. 총괄 및 고안

AIDS는 현대 인류의 역사를 위협하는 두려운 질병의

표 7. Attitude toward AID

Unit: N(%)

Item	Health-related		Health-unrelated		p-value
	Yes	No	Yes	No	
A person infected with AIDS has no value to be sympathized. ※	19(9.6)	178(90.4)	35(22.9)	118(77.1)	.001**
A person infected with AIDS is the one who is morally disordered. ※	31(15.7)	166(84.3)	45(29.4)	108(70.6)	.002**
A person infected with AIDS needs to be prevented from being engaged in specific job category. ※	102(51.8)	95(48.2)	78(51.0)	75(49.0)	.882
AIDS card needs to be possessed. ※	128(65.0)	69(35.0)	97(63.4)	56(36.6)	.760
A person infected with AIDS needs to be isolated. ※	71(36.0)	126(64.0)	72(47.1)	81(52.9)	.038*
Even a patient infected with AIDS needs to be treated equally to other patient.	141(71.6)	56(28.4)	102(66.7)	51(33.3)	.323
There should be a social and economic support for a patient infected with AIDS.	177(89.8)	20(10.2)	130(85.0)	23(15.0)	.168

*p<0.05, **p<0.01, ※ Negative item

표 8.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AIDS

	General knowledge	AIDS infection	AIDS symptom	Whole knowledge	Attitude
General knowledge	—	—	—	—	—
AIDS infection	-.060	—	—	—	—
AIDS symptom	.168**	.173**	—	—	—
Whole knowledge	.382**	.592**	.845**	—	—
Attitude	.112*	-.220**	-.043	-.105*	—

* $p < 0.05$, ** $p < 0.01$

로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입하여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파괴시켜 면역기능을 저하시킨다. 전세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직 AIDS에 대한 확실한 백신이나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예방보건 교육 이외에는 다른 예방법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로 비교 분석하여 AIDS 예방교육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AIDS에 대한 정보경로로 의학계열 대학생들을 조사한 성⁷⁾은 대중매체가 66.0%, 전문서적이 17.0%로 80% 대상자가 대중매체나 인쇄매체로부터 정보를 얻는다고 보고하였으나 성⁸⁾은 치과위생과 학생들의 교육경로는 학교 교육이 35.2%, TV나 라디오 10.8%, 국립보건원에 이즈연맹 2.3%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은 학교 교육이 37.1%, TV, 신문이 31.5%, 인터넷 17.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비보건계열은 TV, 신문이 43.8%, 인터넷 27.5%, 학교 교육 1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계열 교과과정에서 감염 질환 및 AIDS에 대한 교육이 항상 중요시 되어 보건계열 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통한 정보획득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전체 학생으로 볼 때 과거에 비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획득이 많아진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간호사와 비간호계 대학생을 조사한 이와 김⁹⁾은 AIDS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학교, 매스미디어, 인쇄매체, 국가홍보매체 중에서 학교강의를 통한 교육경험이 가장 높은 것(31.8%)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대학이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다.

AIDS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정답률은 보건계열은 70.3%로 비보건계열 66.1%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에이즈에 걸렸을 수도 있다’로 보건계열 94.9%, 비보건계열 89.5%였고,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몇 달 안에 죽게 된다’로 보건계열 67.5%, 비보건계열 71.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전체 학생으로 볼 때 김¹⁰⁾, 이와 김⁹⁾의 연구결과와 부분 일치한 결과로 연구 대상자들이 AIDS는 무서운 병이며 완치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고 예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AIDS 바이러스의 잠복기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여 추후 교육 시 강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IDS 감염에 관한 지식 정답률은 보건계열은 65.3%로 비보건계열 61.9%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항 중 ‘에이즈는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다($p=0.008$)’, ‘에이즈는 침에 의해 전염된다($p=0.025$)’, ‘에이즈는 모유수유로 감염될 수 있다($p=.042$)’의 문항은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보다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과 김¹¹⁾은 B형 간염의 감염경로 조사에서 전체 항목에서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보다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계열의 학생들은 졸업 후에 임상에서 감염성 질환에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교과과정에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교육내용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AIDS 감염원인 보고에 따르면 성 접촉, 마약사용자의 정맥 주사기 혼용, 수혈, AIDS 감염자인 부모에 의한 수직 감염 또는 신생아 감염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³⁾. 본 연구의 감염에 대한 지식문항 중에서 ‘에이즈는 성 접촉에 의해 전염된다’에 대해서 보건계열, 비보

건계열 각각 71.1%, 88.2%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반면 ‘에이즈는 기침이나 재채기에 의해 전염된다’ 문항은 보건계열, 비보건계열 각각 66.0%, 68.6%, ‘에이즈 감염자와 학교나 직장생활을 해도 감염될 수 있다’ 문항은 보건계열, 비보건계열 각각 62.4%, 64.1%로 높은 오답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AIDS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침, 재채기 등으로 감염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성적 접촉이나 수혈 이외의 AIDS 전파경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AIDS 감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IDS 증상에 관한 지식 정답률은 보건계열은 58.3%로 비보건계열 52.9%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과 김¹¹⁾은 B형 간염 증상에 대부분의 문항에서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보다 높은 정답률을 보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문항 중 ‘에이즈에 걸리면 체중이 감소한다’의 항목이 보건계열, 비보건계열 각각 78.7%, 64.1%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고, ‘에이즈에 걸리면 치매가 생긴다’ 항목은 보건계열, 비보건계열 각각 78.7%, 77.1%로 가장 높은 오답율을 보였다. AIDS 증상은 HIV가 인체에 침투하여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점차 감소시켜 어떠한 질환이 발생해도 이를 막아 낼 수 없는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AIDS 바이러스 감염시 면역 신경계를 직접 침범하여 뇌손상을 일으켜 말초신경증, 운동마비,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대상자들 대부분 일반적인 증상들은 알고 있으나 뇌손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에이즈에 걸리면 체중이 감소한다($p=0.002$)’, ‘에이즈에 걸리면 혀의 백반증이 생긴다($p=0.005$)’, ‘에이즈에 걸리면 대상포진이 생긴다($p=0.021$)’의 문항은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김⁹⁾은 AIDS 관련 지식정도는 22점 만점에서 간호계군의 평균점수(18.81점), 비간호계군의 평균점수(16.84점)를 백점률 만점으로 각각 약 85.5점, 76.5점으로 간호계군이 비간호계군보다 높은 지식도를 나타냈고 반면 성⁷⁾은 의학계열 대상학생의 AIDS 지식점수는 18점 만점에 9.30점으로 나타나 백점률 만점으로 약 50점 정도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김 등¹²⁾은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간호과 대학생의 AIDS 지식도

는 18점 만점에 12.01점으로 백점률 만점으로 66.7점으로 나타났고 신과 홍¹⁴⁾은 일반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의 AIDS 지식정도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IDS의 일반적 지식, 감염지식, 증상지식을 포함한 전체 지식 점수는 20점 만점에 보건계열은 12.72 ± 2.67 , 비보건계열은 11.84 ± 3.30 으로 백점률 만점 63.6점, 59.2점으로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보다 다소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주로 학교 교육과정으로 AIDS정보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보건계열 학생들은 TV,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은 비보건계열 학생들에 비해 높은 지식도를 보였다. 따라서 모든 대학생들의 교과과정에서 AIDS 예방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과 홍¹³⁾은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AIDS의 태도점수는 15.15점, 14.13점으로 간호 대학생들이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AIDS의 태도점수는 7점 만점에 보건계열은 4.85 ± 1.67 , 비보건계열 4.38 ± 1.58 로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에 비해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p < 0.01$). 문항 중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동정할 가치가 없다’로 보건계열은 9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보건계열에서는 ‘에이즈 환자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로 85.0%를 나타냈다.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동정할 가치가 없다($p=0.001$)’,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p=0.002$)’,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격리시켜야 한다($p=0.038$)’의 문항은 긍정적인 태도가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보건계열뿐 아니라 비보건계열 학생들의 교육과정에도 AIDS 교육을 체계화하여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와 채¹⁴⁾는 AIDS에 대한 전체지식과 하부영역인 일반적 지식, 예방지식, 전파경로지식정도가 높을수록 AIDS에 대한 태도가 높아지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박¹⁵⁾의 연구에서 AIDS에 대한 지식정도와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고 김¹⁰⁾도 같은 연구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r=.112$ ($p < 0.05$)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일반적인 AIDS 지

식이 높을수록 AIDS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고, AIDS 감염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r=-.220(p<0.01)$ 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AIDS 감염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이⁶⁾는 AIDS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감염 전파경로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본 연구에서 AIDS 전체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는 $r=-.105(p<0.05)$ 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AIDS에 전체지식이 높을수록 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AIDS의 지식도가 높을수록 감염 등에 대한 두려움, 불안으로 태도에는 부정적인 면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AIDS에 관련된 지식뿐 아니라 두려움, 불편 또는 불안을 논의할 수 있는 경험적 학습이 포함된 훈련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대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AIDS 관련 문항별 지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AIDS 관련 지식을 높이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홍보사업과 AIDS 예방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AIDS 예방과 관련된 적절한 지식과 예방행위를 할 수 있는 심리적 요소로서의 태도를 파악하여 태도 특성에 따른 교육전략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이 일부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에 있어 좀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5. 결론

저자는 AIDS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AIDS의 예방을 목적으로 대학생들의 AIDS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에 대해 2009년 9월 9일부터 2009년 12월 10일까지 전북, 경남지역 일부 대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AIDS에 대한 정보경로는 보건계열은 학교 교육이 37.1%, TV, 신문이 31.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비보건계열은 TV, 신문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2. AIDS의 일반적 지식, 감염지식, 증상지식을 포함한 전체지식 점수는 20점 만점에 보건계열이 12.72 ± 2.67 로 비보건계열 11.84 ± 3.30 보다 다소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AIDS의 태도 점수는 7점 만점에 보건계열은 4.85 ± 1.67 로 비보건계열 4.38 ± 1.58 보다 다소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3. 일반적인 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r=.112(p<0.05)$ 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AIDS 감염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r=-.220(p<0.01)$ 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AIDS 지식 전체와 태도와의 관계는 $r=-.105(p<0.05)$ 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AIDS는 전세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완치가 불가능하고 백신이 없는 AIDS의 건강관리는 감염예방이 최우선으로 AIDS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박창수 일반병리학. 5판. 서울:고문사;2008;94-97.
2. 안소윤, 김종순.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과 학생의 성별에 따른 HIV/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 2005;11(2):26-39.
3. 대한에이즈 예방협회 2011.
4. Bennett JA. AIDS beyond the hospital. 1. What we know about AIDS. Am J Nurs 1986; 86(9):1015-1021.
5. Munodawafa D, Bower DA, Webb AA. Perceived vulnerability to HIV/AIDS in the US and Zimbabwe. Int Nurs Rev 1993;40(1):6-24.
6. 한영란, 이광옥. 간호과 학생의 HIV/AIDS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998;12(2):201-220.
7. 성미혜. 의학계열 대학생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취약성 인지정도. 기본간호학회지 2009;15(2): 221-228.
8. 성보견. 치위생과 학생들의 에이즈에 관한 지식과 태도 조사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7;7(3):259-271.
9. 이애경, 김영희. 간호계와 비간호계 대학생의 AIDS 관련 지식 조사연구. 경북대학 1997;1:339-414.
10. 김순옥. 대학생들의 에이즈에 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김천과학대학 논문집 1996;22: 219-225.
11. 정기옥, 김주영. 일부 보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B형 감염에 대한 지식과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9;9(2):125-135.
12. 김순오, 이명숙, 임현빈.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에이즈 관련 지식과 태도 연구. 동남보건대학논문집 2003;21(1):31-45.
13. 신영희, 홍영혜. 대구 경북 지역 일부 대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조사. 대한간호협회 1996; 35(1):94-113.
14. 최길순, 채민정. 일 대학 학생들의 AIDS에 대한 지식,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 2009; 13(2):73-86.
15. 박미영.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에이즈(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 순천청암대학논문집 1997;21(1):125-148.